

일기의 역사와 일성록

강사 : 이기범

* 약력

고려대 한국사학과 졸업
전) 스쿨김영사 체험학습 팀장
전) 사계절, 한우리 등 기획위원
전) 웅진씽크빅 체험학습 책임연구원
전) 청소년어린이책 작가회의 대표
전) 전국어린이역사학대회 집행위원
현) 포시즌교육앤드컨설팅그룹 대표



* 방송

팟캐스트 <부모가 미리 듣는 역사일기> 출연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의 '한국의 문화재' 코너 패널
네이버 오디오클럽 <범작가의 아빠, 한국사 여행 떠나요> 운영

* 저서

신나는 교과서체험학습시리즈<서대문형무소역사관>/주니어 김영사
전통문화 시리즈<탐>,<도자기>/문학동네어린이
그림으로 보는 우리 역사 문화 시리즈 <대동여지도>, <조선통신사>, <훈민정음 해례본>/그린북
스토리캡슐 우리 역사와 함께 떠나는 <엄마 아빠 우리 어디가?>/웅진다책

<아빠 한국사 여행 떠나요>/코알라스토어

<날마다 한일전>/우리교육

[문화광장] 도산 안창호 상하이 일기, 문화재 등록 예고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기가 곧 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안창호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를 지낼 당시의 일기 3책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일기는 1920년과 1921년 약 8개월간의 기록으로, 당시 안창호 선생의 활동을 임시정부 관계자가 기록한 자료입니다.

이 일기는 안창호 선생의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선생이 직접 일기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임시정부 초창기 활동과 조직 운영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라며 문화재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일기는 등록 예고 기간이 끝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될 예정입니다.

일기의 역사 - 목차

1. 일기

2. 역사 속 일기

3. 일기 읽기

1) 을병연행록 - 담헌 홍대용

2) 해사일기 - 조엄

3) 표해시말 - 문순득, 정약전

4) 산행일기 - 여유당 정약용

일기[日記] ?

매일매일의 일과 경험을 개인적인 느낌이나 사과의 추이에 따라 기록하는 자유로운 산문양식.

일기 => 공개 => 사료 => 역사

記와 錄 그리고 誌

記 : 시간 순서에 따라 일상적인 사물과 사건 등을 기록(난중일기, 경연일기)

錄 : 특정한 외면적인 사건 전개를 묘사하는 데에 충실(일성록, 해유록)

誌 : 업무적 성격의 기록(백범일지)

▶ => 사실상 장르로서 구분되지 않고 쓰이는 용어

2. 역사 속 일기

1. 기록 상 최초의 일기 : 혜초의 왕오천축국전(8세기), 이규보의 「남행월일기」(1201년)

2. 조선의 일기(약 1,600여 종)

=> 19세기(32%) 18세기(22%) 17세기(18%) 16세기(12%) 15세기(9%)

1) 국정 일기 - 일성록, 승정원일기, 경연일기

2) 정치 일기 - 한중록, 계축일기

3) 여행 일기 - 여행일기 : 자경지함흥일기, 산행일기

표류일기 : 표해록, 표해시말,

사행일기 : 연행사(열하일기, 담헌일기), 통신사(해유록, 해사일기)

유배일기 : 북정록, 음청사

4) 진중 일기 - 난중일기, 병자일기, 김하락정토일기, 용연일기

5) 생활 일기 - 양아록(육아일기)

- 정청일기(치병일기)

- 노상추일기, 흙영, 화재일기(생애일기)

2. 역사 속 일기 - 일기를 왜 쓰는가?

“금일로써 어제를 보고, 오는 달을 전 달과 비교하여 모든 일행일사(一行一事)로 혹시 기록하지 못한 것이 있는즉, **다른 사람들이 비록 알지 못한다 하여도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런 까닭으로 내가 그것을 자세히 한다.” 인재 야곡일록(조극선)

“무릇 사람의 일이란 가까우면 자세하게 기억하고 조금 멀어지면 헛갈리며, 아주 멀어지면 잊어버린다. 하지만 일기를 쓴다면 가까운 일은 더욱 자세하게 기억하고, 조금 먼 일은 헛갈리지 않으며, 아주 먼 일도 잊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일기란 것은 이 한 몸의 역사다.**” 흙영(유만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기록한다... 손자가 장성하여 이것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 " 양아록(이문건)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니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는가?"

남쪽으로 벽을 의지하여 높은 누각을 만들고 난간 안으로 기이한 악기를 벌였으니, 서양국 사람이 만든 것으로 천주에게 제사할 때 연주하는 풍류였다. 올라가 보기를 청하자 유송령(독일이 선교사)이 매우 지탄(指彈)하다가 여러 차례 청한 뒤에야 열쇠를 가져오라고 하여 문을 열었다.

틀 밖으로 조그만 말뚝 같은 두어 치의 네모진 나무가 줄줄이 구멍에 꽂혔거늘, 유송령이 그 말뚝을 눌렀다.

위층의 동쪽 첫 말뚝을 누르니, 홀연히 한결같은 저소리가 다락 위에 가득하였다.

웅장한 가운데 극히 정제되고 부드러우며 심원한 가운데 극히 맑은 소리가 나니...

말뚝을 누르니 그 소리가 손을 따라 그치고 그 다음 말뚝을 누르니 처음 소리에 비하면 적이 작고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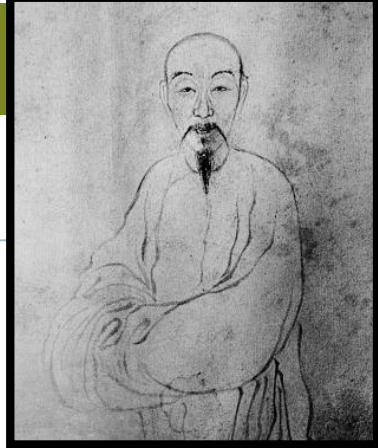
차차 눌러 아래층 서쪽에 이르자 극진히 가늘고 높았다.

...대개 생황 제도를 근본으로 하여 천하에 다양한 음률을 갖추었으니, 이는 고금에 희한한 제작이다

이 악기 제도는 바람을 빌려 소리를 나게 하는데, 바람을 빌리는 법은 풀무와 한가지다.

...바깥 바람을 틀 안에 가득히 넣은 뒤 자루를 놓아 바람을 밀면 들어오던 구멍이 절로 막히고 통 밑을 향하여 맹렬히 밀어댄다. 통 밑에 비록 각각 구멍이 있으나 또한 조그만 더데를 만들어 단단히 막은 까닭에 말뚝을 누르면 틀 안에 고동을 당겨 구멍이 열린 뒤 바람이 통하여 소리를 이룬다.

소리의 청탁고저는 각각 통의 대소장단을 따라 음률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중국 절강성의 전설이 된 홍대용과 엄성의 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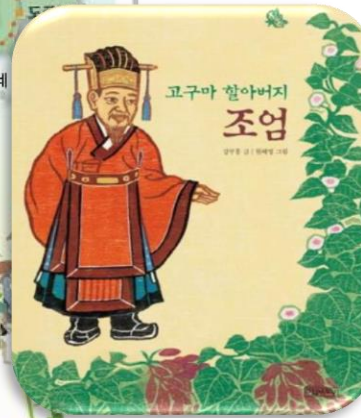
홍대용은 넓은 땅에서 제대로 된 선비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던 차에 북경 유리창에서 엄성·반정균·육비 등 청나라 학자들을 만났다. 이들 또한 평소 제대로 된 지기(知己)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의 학식에 놀라고 반기며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었다. '한 번 이별하면 다시는 못 만날 것이니, 황천에서 다시 만날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 생전에 더욱 학문에 정진하자'하며 약속하고 영원한 이별을 하였다.

덕보(홍대용)는 이들 중 동갑인 엄성과 특히 뜻이 잘 맞았다. 엄성에게 충고하기를 '군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숨기는 것은 때에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엄성이 크게 깨우치는 바가 있어서 과거를 포기하고 남쪽으로 간 뒤 몇 해 만에 그만 죽었다. 부고를 받아든 덕보가 제문을 짓고 제향(祭享)을 중국으로 보냈는데, 마침 이것이 엄성의 집에 도착한 날이 대상(大祥) 죽은 지 2년만에 지내는 제사)이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경탄하며 '명감(冥感)이 닿은 결과다'라고 하였다. 엄성의 아들이 부친의 유고를 덕보에게 보냈는데 돌고 돌아 9년 만에 도착하였다. 그 유고에는 엄성이 손수 붓으로 그린 덕보의 초상화가 있었다(그 초상화는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으며, 홍대용의 유일한 초상화이다). 엄성이 병이 위독할 때 덕보가 기증한 조선산 먹과 향을 가슴에 품고 떠났다. 관 속에 이 먹을 넣어 장례를 치렀는데, 절강사람들이 기이한 일이라 하였다.

박지원의 [홍덕보묘지명] 중에서



해사일기(조엄)



연 대			정 사	부 사	종사관
서 기	조선 일본	간 지			
1607	선조40	정 미	여우길	경 섬	정호관
1617	광해군9	정 사	오윤겸	박 재	이경직
1624	인조2	갑 자	정 립	강홍중	신계영
1636	인조14	병 자	임 광	김세렴	황 호
1643	인조21	계 미	윤순지	조 경	신 유
1655	효종6	을 미	조 형	유 창	남용익
1682	숙종8	임 술	윤지완	이언간	박경후
1711	숙종37	신 묘	조태억	임수간	이방언
1719	숙종45	기 해	홍치중	황 선	이명언
1748	영조24	무 진	홍계희	남태기	조명채
1764	영조40	갑 신	조 엄	이인배	김상익
1811	순소11	신 미	김이교	김면구	페 지

‘이 섬에 먹을 수 있는 플뿌리가 있는데 감저 (甘藷) 또는 효자마(孝子麻)라 부른다. 일본어 로 고귀위마(古貴爲麻)라고 하는 이것은 생김 새가 산약과 같고 무뿌리와 같으며 오이나 토 란과도 같다.…그것은 날 것으로 먹을 수 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도 먹을 수 있다. 떡을 만들거나 밥에 섞는지, 되지 않는 것이 없 으니 가히 흉년을 지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해사일기]

신유(辛酉) 12월(순조 1년 (純祖 元年) 1801 년 (신유))

우이도(牛耳島)[일명 소흑산도(小黑山島)]에서 작은 배[백여 섬을 실을 수 있다.]에 짐을 싣고 태사도(苔土島)[대흑산도(大黑山島) 남쪽 수 백리에 있다.]에 들어갔다. 같이 배에 탄 사람은 나의 작은 아버지[이름 호겸(好謙)], 문순득(文淳得), 이백근(李白根), 박무청(朴無淸), 이중원(李中原), 김옥문(金玉紋)[관동(杆童)]¹으로 홍어[속칭 무럼]를 사기 위해서이다.

임술(任戌) 정월 18일(순조 2년 (純祖 二年) 1802 년 (임술))

뒹굴을 풀고 다시 소흑산(小黑山)을 향하여 변도(弁島)[대흑산(大黑山)과 태사(苔土)의 중간에 있는데 속칭 곡갈이라 부른다.]에 이르러 갑자기 서북에서 일어난 큰 바람을 만나서 바람에 몰리게 되어 소흑산(小黑山)에서 서남으로 수 백리를 남행하여 조도(鳥道)[섬은 진도의 서쪽에 있는데 속칭 새암이라 한다,]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려 하나 갈 수가 없다. 앞을 보니 큰 바다로 안중에는 한 점의 산도 볼 수 없다. 또 저녁이 되어 밤이 깊었으나 바람은 줄지 않고 오경(五更, 새벽 4시쯤)에 키(방향타) 자루가 꺾이고 돛은 펴 수가 없어 돛대를 고물에 묶어 키로 쓰고 가는 데로 내맡겼다. 날이 밝아 동남쪽에 큰 산이 바라보이니 뱃사람이 제주라고 말했는데 바라볼 수는 있으나 가까이 할 수는 없었다.

1월 24일

동풍을 만나 돛을 펴고 제주로 향하였다.

1월 25일

제주의 서쪽에 이르러 다시 서북풍을 만나 동남으로 향해 갔다.

1월 29일

날이 밝아 동남에 있는 큰 섬을 보고 오시(午時)에 배를 멈추고 닻을 내리니 갑자기 6, 7인이 배를 타고 오는 것이 보였다. 먼저 물을 대접하고 이어서 죽을 주어 삼일을 먹지 못 했으니 그 기쁨을 알만 하리라. 물으니 유구국(琉球國, 오키나와) 대도(大島)[유구(琉球)는 지금 중산(中山)으로 바뀌다.]라 하였다.

2월 초2일

배로 50여리를 가서 양관촌(羊寬村)[대도(大島)이다]으로 가서 육지에 내리니 움막 한 채를 엮어 살게 하고 문 밖에 또 움막이 있어 8인이 지켰다.

3월 20일

배를 타고 섬을 따라 백 여리를 가서 금촌(禽村) 앞에 닿았다.[큰 섬이다.]

3월 29일

배로 덕지도(德地島)를 지나고 다음날 양영부(洋永府)를 지나 입사도(立沙島)에 이르러 바람에 막혀 4일을 머물렀다.

4월 초4일

백촌(白村)[대도(大島)에서 1,500리, 왕도(王都) 수리부(首里府)와의 거리는 10리 이다.]에 이르니 역인(譯人, 통역관)이 와서 사정을 묻는데 우리나라 말을 대략 할 줄 알았다. 움막 한 채를 엮어 거처하는데 매일 쌀 한 되 다섯 홉과 채소 여러 그릇을 주고 하루 걸러 돼지고기가 제공 되었다. 또 여름옷을 내려주고 병이 들면 의원이 와서 진찰하고 약을 주었다.

10월 초7일

배를 띄워 대국(大國)을 향하여 세 척의 배가 동시에 출발[그 두 척에는 유구(琉球)에서 대국으로 가는 관원을 태우고 그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 6인과 복건(福建) 천진부(川津府) 동안현(同安縣)의 바람을 만나 조난한 32인, 유구인(琉球人) 60인을 태우다.]하여 마치산도(馬齒山島)[백촌(白村)에서 400리]에 이르러 10일을 머물렀다. 유구인(琉球人)이 이 산에 와서 기도를 하며 오래 머물러서 나가지 못하였다.

10월 16일

배를 띄우다.

10월 17일

서풍을 만나 10여일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가 다시 동북풍을 만나다.

11월 초1일

여송(呂宋, 필리핀) 서남(西南) 마의지방(馬宜地方)에 도착하여 닻을 내렸다. 유구인(琉球人) 화인(華人) 15명이 물을 길어오기 위하여 육지에 올라가서 다음날 아침 돌아 왔는데 6인이 없어져서 물으니 본국인에게 잡혔다고 한다. 여송(呂宋)의 동북에는 다섯 섬이 있어 배로 13일을 가니 보였는데 풍속을 알지 못하여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11월 12일

배를 타고 남쪽으로 하루를 가서 한곳에 닿았는데[지명은 알지 못한다.] 5일을 머물며 물을 길고 옷을 빨았다. 하루를 가서 일로미(一啖米)에 닿았다.

일로미에는 복건(福建)사람 수 십호가 살고 있었다.[말리라(末利羅)는 여송(呂宋)의 지명으로 일로미와의 거리는 3일의 노정으로 복건인(福建人) 3,000호가 산다고 했다.] 복건(福建)의 풍난(風難)을 만난 사람이 왔을 때 원래 유구인(琉球人)으로부터 박대를 받았는데 일로미에 이르자 스스로 일로미에 살고 있는 복건인(福建人)에 의탁하여 집을 빌려 따로 살며 돈을 빌려 먹을 것을 마음대로 하였고 또 우리를 불러 같이 살았다. 어쩌면 유구인(琉球人)에게 빚을 떠넘기려는 계책이었다.

유구인(琉球人)에게 걸말로 들으니 여송(呂宋)은 난민을 후대하여 하루에 소 한 마리를 잡는다하니 유구인(琉球人)은 처음에는 믿었으나 나중에 깨달아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복건인(福建人)은 여송(呂宋)의 도움을 받고 있어 이 명령은 행해 지지 않았다. 나중에 비록 조금 줄었으나 음식은

가경(嘉慶) 경진년(1820, 순조 20) 봄에 3월 24일 선백씨(先伯氏)가 학순(學淳)을 데리고 춘주(春州)에 가서 머느리를 맞아올 때에 작은 배를 꾸며 협중(峽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나도 따라가서 소양정(昭陽亭)에 올라 청평산(淸平山) 폭포를 보고 절구시(絶句詩) 25수, 화두시(和杜詩) 12수, 잡체시(雜體詩) 10수를 지었다.

그후 4년이 지나 계미년(1823, 순조 23) 여름에 4월 15일 학연(學淵)이 대림(大林)을 데리고 춘주에 가서 머느리를 맞아올 때에 역시 작은 배를 꾸며 협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내가 또 따라갔으니, 마음은 한계(漢溪)와 곡운(谷雲)에 있었다. 특별히 큼직한 고기잡이배를 구하여 마치 집처럼 꾸미고 그 문미(門楣)에다가 ‘산수록재(山水綠齋)’라는 편액을 걸었으니 이것은 내가 썼다. 그리고 좌우 기둥에는, 한쪽에는 ‘장지화가 초삽에 노닌 취미[張志和菰雪之趣]’라고 쓰고 한쪽에는 ‘예원진이 호묘에 노닌 정취[倪元鎮湖柳之情]’라고 썼으니 이는 승지(承旨) 신작(申緯)의 예서(隸書)이다. 또 학연의 배에 쓰기를 ‘유어황효녹효지간(游於黃驍綠驍之間 황효와 녹효 사이에서 노닌다는 뜻임)’ 이라 하고, 그 기둥에는 ‘부가범택(浮家汎宅 물에 뜬 집이라는 뜻임) · 수숙풍찬(水宿風餐 물위에서 자고 바람을 먹는다는 뜻)’ 이라 썼는데, 천막과 침구, 그리고 필기구, 서적에서부터 약탕관과 다관(茶罐), 밥술 국술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속으로는 화공 한 사람을 대동, 단연(丹鉛)과 담채(澹采)를 들려 수행시키면서 물이 다하고 구름이 일어나는 곳이라든가, 버들 그늘이 깊고 꽃이 활짝 핀 마을에 이를 때마다 배를 멈추고 그 좋은 경치를 가려 제목을 붙이고 그리게 하고 싶었으니, 그것은 이를테면 ‘사라담에서 수종사를

바라본다.[沙羅潭望水鐘寺]’라든가 ‘고랑도에서 용문산을 관망하다. [皐狼渡望龍門山]’ 등으로서 모두 그러

둘 만한 절경이었다.

선비 방 우도(方禹度)란 자가 산수화에 능하여 3·4중첩의 깊고 얇은 경지를 잘 그렸다. 학연이
몸소 찾아가 데려왔는데, 온 지 며칠 안 되어 한질(寒疾)이 생겨 대동할 수 없게 되어
유감천만이었다. 그 후 주위에 방 선비와 절친한 자가 있어 말하기를,

“그가 묵은 지 며칠이나 되며 그가 먹은 쌀은 몇 되나 되는가?”

고 묻기에 대답하기를,

“3일 동안 머물렀는데 끼니마다 반 되를 먹었다.”

고 하였더니, 그 사람은,

“어허! 그 사람 가게도 되었군. 그는 한 끼에 두 되씩 먹어 하루 세끼 여섯 되는 밥을 먹는데 날마다
6분의 1을 먹었으니 어찌 병이 나지 않겠는가. 그가 가게 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하였다.

○ 약암(約菴) 이여홍(李汝弘)이 소식을 듣고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죽산(竹山)으로부터
1백 20리를 달려와 같이 가기로 약속하였고, 서울 사는 소년

한만식(韓晩植)·우정룡(禹正龍)·오상완(吳尙琬)이 듣고 역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와서 배에 태워주기를 애원하였다. 내가 ‘배는 작고 짐이 무거워 탈 수 없다.’고 하자, 소년들이
모두 서운해하므로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4월 21일.

일찍 출발하였는데, 날씨가 흐려 비가 오려 하다가 늦게야 개었다. 서원에서 한 굽이를 돌아 침목령(檜木嶺) 무파래고개(巫巴來古介) 을 넘자 바로 침목천(檜木遷)을 만났는데, 까마득하게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것이 마치 기락각(幾落閣)과 같이 위태로웠다. 특별히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새로 지나감으로써 편편하게 길을 잘 닦아 발을 붙일 수 있었다. 10리를 행하여 인람역(仁嵐驛)을 지난 다음 한 굽이를 돌아 강물 서쪽 산너머를 보니 황량한 정자가 하나 있었다. 이는 곧 절도사(節度使) 이천로(李天老)의 별장(別莊)으로서 지암정자(芝巖亭子)라고 하는 것이다. 5리를 더 가서 모진도(牟津渡)에 도착, 나루를 건너니 이곳이 원당점(員塘店)이다. 북쪽으로 산마루를 바라보니 그 위에 조그마한 촌락이 있는데, 이는 곧 이경중(李敬仲) 익(益)의 묘촌(墓村)이다. 3리를 걸어 마령(馬嶺)을 넘었는데, 몹시 험준하였다. 역시 예조 판서의 덕택으로 다행스럽게도 말이 지치지 않았다. 5리를 걸어 서오촌(鉏鋤村)에 이르렀는데, 그 동쪽은 곧 이 병사(李兵使) 형제의 전장(田莊)이다. 서북쪽으로부터 산을 돌아나오는 물이 있는데, 바로 곡운(谷雲)의 하류이다. 여기서 낭천(狼川)의 큰길을 버리고 소로로 들었는데, 몇 리 사이가 험난하더니 한 모퉁이의 산을 돌아나오자 다시 평탄해졌다. 7리를 걸어 이곡촌(梨谷村)을 지났는데 마을 형태가 몹시 밝아 보이고 유명한 배나무 1백여 주가 있었다. 5리를 더 걸어 사외창(史外倉)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 이날 관에서 양식을 방출하였는데 수십여 명의 산중 백성들이 모였다. 창고의 곡식이 많이 축나 허위로 양식을 방출하고 그 결점을 미봉하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여기서부터는 모두가 처음 보는 지역이다. 비로소 새로 시(詩)를 지었다.

문암서원(文巖書院)에서 자면서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깊은 산 장수하는 곳 / 嶽麓藏修地

맑은 강물이 앞을 감돈다 / 滄江繞案回

재실은 함께 공부할 만한데 / 齋堪書共讀

선비들은 술 때문에 자주 찾아오네 / 儒以注頻來

풀은 우거져 돌층계를 덮었고 / 碧草深堦石

붉은 격자창은 재 속에 숨었네 / 紅櫺隱竈灰

무슨 연유로 산중 스승이 되었는고 / 何由作山長

은둔하여 영재를 기르기 위해서네 / 遯跡育英才

수고하셨습니다.